

어르신 리더들이 모였다

무주군 경로당 노인지도자 교육 실시

2019 무주군 경로당 노인지도자 교육이 26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노인회장 이광부)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로당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

송열 의장, 안호영 국회의원, 황의탁 도의원을 비롯한 관내 경로당 회장과 지회 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는 미래인성개발연구소원 강복환 원장이 강사로 참석해 "노인지도자의 역할과 노인 학대예방"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으며 경로당 최옥문

관리부장이 "경로당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이광부 회장은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라며 "이번 교육이 지도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키우는 동시에 실무 능력과 자기개발의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들의 습터이자 화합과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자 여러분이 앞장서 달라"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지기 위해, 또 행복해지기 위해 모이는 곳이 바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더 열심히 뒷바라지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는 현재 6개 읍면에 270곳의 경로당이 운영 중으로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회원 6,500여명)에서는 '나눔과 베품을 통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목표로, △노인회 조직 및 역량강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노인취업과 일자리 창출,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19 무주군 경로당 노인지도자 교육이 26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진안군,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산림자원, 산림복지, 재해예방 등 시행과정·결과 목표달성도 평가

진안군은 2019년도 산림분야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2월 정부로부터 표창과 표상금 650만원을 받는다.

정부합동평가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수종갱신 벌채, 도시녹화, 임도시설 사업, 산불 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와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등 7개 지표로 평가한다. 지표별 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차등해 우수한 광역지자체 9개 기관과 기초지자체 15개 기관을 선정했다.

진안군은 이러한 평가체계에 맞춰 지표 담당자의 1:1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워크숍 등을 통해 지표매뉴얼 숙지 및 분석 등을 통해 정부합동평

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맞춤형 산림행정 서비스 제공과 산림분야 시책 발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민주평통, 4분기 정기회의 및 통일의견수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회장 유일권)는 평화·통일에 대한 자문위원의 이해 제고 및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6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영수 장수군수를 비롯 자문위원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행기관장인 장영수 장수군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

으는 주체로서 온 국민이 함께 열어가야 하는 통일시대를 준비 하는데 있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는 인사말에 이어 유일권 회장은 '우리가 만드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목표를 위해 여기 계신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도움과 참여가 있을 때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꿈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맡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회장은 또한 2020년에도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내외정책 추진방안 토론 △통일의견수렴 설문 조사 △12월 중 협의회 통일활동사업보고 및 기타 보고 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한일장신대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 '네 마음을 보여줘' 일일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일일캠프 성료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한일장신대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 '네 마음을 보여줘' 일일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근 아동·청소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문화에 익숙하다보니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으로 의사소통,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마트폰 의존, 친구관계에서 오는 우울과 왕따, 학교폭력 등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추세다.

군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적성, 미술, 음악 등을 포함한 예술 심리치유 시간과 아이들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 등을 파악하는 심리검사 등으로 캠프를 추진했다.

10년, 20년 후 미래세상을 이해하고 나의 직업을 상상해보고, 희망을 담은 크리스마스 바구니 만들기, 신나는 리듬에 나의 몸을 맡겨보기 등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없이 오로지 몸과 마음으로 흥겨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그림과 문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 심리검사는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부모님에게 제공됨에 따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녀들의 잠재적 심리문제와 성격 등을 파악하여 내 자녀에게 맞는 양육방법이나 양육태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일일캠프를 시작으로 관내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합심리검사나 지속적인 상담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사례관리를 제공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각한 중증정신질환으로 이환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동절기 이웃돕기 손길 잇달아

진안군은 26일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랑의 손길이 잇달아 주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전면 출신 김공홍씨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500kg을 진안군청 사회복지과와 상전면사무소에 기탁했다.

김씨는故김재림씨의 자녀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5년째 해마다 불우이웃을 위해 백미를 기탁해 왔다.

김씨는 "아버지 뜻에 따라 나눔 활동을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전면 용덕마을 출신 신정호씨는 진안군청을 방문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불 80채(시가 1,0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신씨는 "추운 날씨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관내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이불을 기증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전직원 폭력 예방 교육

진안군은 26일 군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에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성희롱·성매매 예방 전문강사인 최선광 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으로 진행됐다.

군은 매년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지켜야 할 성희롱 예방에 대한 처리규정과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은 "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앞으로도 직장 내 평등한 성 문화 정착과 건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고3 수험생 건강교실 운영

무주군이 수능을 끝낸 관내 고3 수험생(예비성인)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5일에는 안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기초조사(BMI, 복부지방률, 기초대사량 검사 등)와 건강 상담, 흡연자 금연상담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유연성과 근력운동, 공예체험 등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그동안 공부한다고 건강을 따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몸과 마음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다"라며 "단단해진 몸과 마음으로 멋진 대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예비성인 건강교실에는 보건소의료원 운동과 금연, 영양, 심뇌, 정신 분야 담당 인력을 비롯해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무주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외부강사 등 15명이 함께 하며 28일에는 설천고등학교, 29일에는 무풍고등학교, 12월 3일에는 무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주군보건소의료원 이해자 건강증진팀은 "수능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으로 지쳐있는 고3학생들의 건강을 살피고 성인이 돼서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만족하고 많이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알차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